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사회복지사

허 유 래

들어가는 말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며 충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정의 정서적 변화 또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에는 가정의 붕괴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1]. 호스피스에서는 말기상태의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환자의 임종이후 사별가족들이 사별로 인한 슬픔의 과정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에 원만하게 적응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환자의 임종 후 가족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초점[2]으로 하는 사별가족 관리는 호스피스 팀원들 중 사회복지사에게 그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별가족들이 경험하는 애도의 단계와 반응을 살펴보고 사별가족 관리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상실과 슬픔, 사별

1. 애도의 단계와 반응

사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건강과 안녕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고 상실의 결과를 이해하며 죽은 사람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

다(Bohnet.N.L, 1986)[3].

1) 충격

사별의 첫단계로 수시간 혹은 수일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때는 죽음을 이미 예견하였다고 해도 죽음을 부정하게 되며 울음, 탄식,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고통

이 단계에 이르면 사별가족은 상실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 죽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긴박감으로 그리움, 고독함, 고인에 대한 갈망과 몰두함 등이 나타나고 고인의 자취를 끊임없이 찾고자 한다. 또한 고인에 대한 환시나 느낌들로 인해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우울해 진다.

3) 회복

이 시기에는 무력감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고통이 감소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 점차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별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비참한 절망감이 사라지고 현재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4].

2. 사별가족이 겪는 고통

1) 신체적 고통(Physical Pain)

숨막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어지러움, 마비, 신체적 피로, 탈진, 원기부족이 나타나고 식욕, 체중, 소화, 수면양상, 활동수준, 성행위, 신체건강의 변화가 일어난다[5].

2)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Pain)

감정의 폭발, 히스테리, 무감동, 분노, 불안정감, 두

려움, 슬픔, 그리움, 우울, 불안, 외로움, 실패감, 비현실감, 악몽, 기억상실, 집중력 저하, 절망, 자살시도, 현실도피의 열망, 상처, 부끄러움 상실로 인한 슬픔과 행복 등의 혼합된 감정을 겪게 된다.

3) 사회적 고통(Social Pain)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고인과 함께 죽고 싶어하거나 고인과의 추억에 몰두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위축, 사회에 부정적 및 고립, 익숙한 업무처리의 지연, 의존감, 지지의 요구, 자신감 저하, 창의성과 자발성의 결여, 역할 변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 영적 고통(Spiritual Pain)

인생에 대한 허무감, 신을 향한 원망, 분노, 사별이 신이 내린 벌로 여김, 신의 부재를 느낌, 절망, 죄의식, 자책, 자살의도, 삶의 목적과 상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의 혼란 등이 있다.

5) 재정적 고통(Financial Trouble)

가장의 죽음인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 남은 가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사별가족 관리

1. 개념

사별가족관리는 환자가 사망한 후 그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키며, 사별 후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적응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실천방법이다[6].

2. 목적

- ① 사별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킨다.
- ② 사별로 인한 슬픔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일상생활과 사회에 잘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④ 위기와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 ⑤ 가족들을 질병으로부터 도와준다[7].

3. 사회복지사의 역할

1) 개별상담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는 사별가족이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용기를 갖도록 지속적인 개별상담을 제공한다.

2) 집단사회사업지도

가족구성원 자신의 능력의 과소평가로 인한 의욕상실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집단사회사업 지도 방법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치료 기법을 통해 가정의 항상성을 유지하여 건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8].

3) 사별가족모임의 형성

사별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모임에 참석한 사별가족들이 서로의 슬픔의 과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슬픔 극복과 새로운 일상생활로의 복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별가족의 특성에 따른 구분(사별한 남편들의 모임, 어린 자녀를 사별한 부모 모임 등..)으로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관리하여 사별가족들이 슬픔 극복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위로편지 발송, 전화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 내 자원연결

정기적인 위로편지와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별가족이 슬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내의 적절한 지지체계 형성 및 자원연계를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

5) 사별가족지지 자원봉사자 관리

사별가족 지지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별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

한 파악 및 관리를 하고, 더불어 사별가족지지 봉사자들의 소진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사별가족관리의 실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1. 입원환자 가족 관리

- ① 환자 입원 시 초기 면담
- ② 환자의 질환 및 임종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문제에 대한 파악 및 개입
- ③ 환자의 임종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개입 계획

2. 임종 시 가족 관리

- ① 임종시 가족과 함께 있어주며 슬픔에 동참
- ② 환자와 가족이 작별인사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③ 영안실 방문 및 장례 예식 참여

3. 임종 후 관리

- ① 사별 후 1개월 시점부터 정기적인(월 1~2회) 전화상담 -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 ② 50일, 100일, 1주기 위로편지 발송, 성탄·부활 카드 발송 - 자원봉사자
- ③ 사별가족 경조사 참석 -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 ④ 사별가족 가정방문
- ⑤ 월 2회 사별가족지지 모임 및 상담
- ⑥ 연 2회 전체사별가족 모임

사별가족 집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명

사별가족모임

2. 프로그램 일시

2001년 1월 19일(금)~6월 15일(금)(월 2회 총 10

sessions 실시)

3. 프로그램 대상

일반집단	질병으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
위험집단	호스피스 센터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
표적집단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
클라이언트 집단	표적집단 중 프로그램 당일 참석한 가족들

4. 프로그램 개발 배경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에서는 매월 1, 3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병동미사를 운영하면서 사별가족들이 미사에 함께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병동미사가 시작된 초창기에 몇몇 사별가족들이 미사에 참석하면서, 미사 후 간단한 다과와 함께 호스피스 과장 수녀의 진행으로 차모임 형태의 사별가족 모임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족들의 수가 늘어나고 기존의 차모임 형태의 사별가족모임이 참석한 가족들의 상실감과 슬픔, 사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호스피스 과장 수녀의 의뢰로 사회사업팀에서 사별가족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당시 호스피스를 담당하였던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사회사업가 2명, 수련사회사업가 4명, 총 7명이 참여하였고, 미국에서 bereavement support group specialist로 활동하고 있는 Alen Taplow가 Elisabeth Kubler-Ross Center에서 개최한 workshop에서 발표한 바 있는 bereavement support group program[9]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참고로 본 저자는 당시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본 프로그램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자 임종 후 가족들은 슬픔을 참고 견디며 상실에 적응해야만 하고 또한 환자가 수행했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따

라서 환자가 임종한 후 그 가족들은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이 가중된다. 이에 대해서 임종환자의 가족이 안정성과 용기를 갖도록 지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가족구성원의 의욕상실을 극복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3. 프로그램 목적

사별로 인한 가족의 충격을 약화시키고 사별가족 슬픔의 과정을 잘 극복하도록 돕고 가족구성원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가족의 위기와 질병을 예방하고 사별가족이 정상적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프로그램 목표

사별가족의 슬픔의 과정이해 및 가족구성원의 재구성역할 수행을 도모한다.

5. 기대효과

- 사별가족들의 역할 재 담당
- 사별극복체험에 대한 상호 feedback 제공 및 공감형성을 통한 안정감 유도
- 사별가족 지지단체의 형성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

6. 프로그램 장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내 다용도실

7. 참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프로그램 개발 당시 기존 모임 참여 대상자 군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병동 미사와 사별가족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가족에 의해 집단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Open Group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참여자 구성도 매회 변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session의 연속성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8. 세부 프로그램 내용

1 session

일 시 2001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內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수련사회복지사 한○○
(보조 진행자)

참석자 6명(남 1명, 여 5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 tape, 명찰, 편지지, 우표, 필기구, 우편함

주 제 그리운 이를 위한 편지

- 내 용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2. 자기소개/가족소개 및 name tag 만들기
-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 만들기
 3. 공동체 나눔: 작문 "그리운 이를 위한 편지"
- "편지" 작성 후 마련된 우편함에 넣어 발송하는 의식
 4. 느낌 나눔
 5.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첫 session이었는데, 프로그램에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과 다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구성원의 구분이 뚜렷하였다. 젊은 층의 사별가족의 경우 참여태도가 적평 가 극적이었으나, 노인 구성원은 편지 작성 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이런 걸 왜 하나"고 반응하고 거부 의사 밝히기도 하였다. 편지 작성 후 느낌 나눔 시에는 대부분 활발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2 session

일 시 2001년 2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內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수련사회복지사 한○○
(보조 진행자)

참석자 7명 (남 1명, 여 6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tape

주 제 비애감과 애도 - “느낌에 관하여”

-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 2. 사별이후 겪게 되는 일반적인 감정에 대한 설명
- 내 용 3. 공동체 나눔 : “느낌에 관하여”
 - 구성원들이 각자 느끼는 사별이후의 감정들에 대해 자유롭게 나눔
- 4.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사별이후에 겪게 되는 일반적인 감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성원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대상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감정을 가진 다른 대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평 가 사회복지사는 사별가족이 경험하는 애도기간의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감정들을 나누는 동안에 대상자 당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조성과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개입 없이 대상자간 역동 및 참여정도를 관찰하는 정도로 진행하였다.

3 session

일 시 2001년 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3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內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수련사회복지사 한 ○○ (보조 진행자)

참석자 8명(남 2명, 여 6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 tape, 설문지, 필기도구

주 제 자기자신 돌보기

-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 2. ‘자아개념’, ‘우울양상’등에 관한 설문지 작성 및 결과 나눔
- 내 용 3. 공동체 나눔 : “자기자신 돌보기”
 - 스스로를 위한 위안의 방법에 대해 나눔
- 4.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연령이 높은 구성원은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 나타내어 자원봉사자가 도와 작성하였다. 스스로의 위안방법에 대해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양상이 낮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안방법들을 가지고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특히 자녀를 사별한 경우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 가 자기위안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방치하거나 자학하는 구성원들의 경우, 다른 구성원들의 자기 위안의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누릴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및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4 session

일 시 2001년 3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3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內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 ○, 수련사회복지사 박 ○ ○ (보조 진행자)

참석자 6명 (남 - 1명, 여 5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tape,

주 제 스트레스 관리기법

-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 2. 스트레스의 개념 및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명
- 내 용 3. 공동체 나눔 : “스트레스 관리기법”
 - 각 구성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눔
- 4.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으면서도 적절한 대처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구성원들의 경우 다른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룹 전체가 사별로 인한 공통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대처방법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각자가 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집단내의 타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구성원을 empowerment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5 session

일 시 2001년 3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3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內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수련사회복지사 박○○ (보조 진행자)

참석자 7명(남 1명, 여 6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tape, 환자 사진

주 제 “내 마음 속의 앨범”

-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 2. 공동체 나눔 : “내 마음속의 앨범”
- 내 용 - 가족들이 준비해 온 사진 속의 고인과의 추억 이야기 나눔
- 3.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지난 회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자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동생의 사진을 가져왔던 구성원 한 명이 먼저 사진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다른 구성원들도 자유롭게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인에 대해 기억하며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등의 감정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감성교감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나, 사진이 준비된 가족의 수가 적어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6 session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3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內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사회복지사 허○○, 수련사회복지사 박○○(보조 진행자)

참석자 5명(남 1명, 여 4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tape,

주 제 “나의 친구 이야기”

-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 2. 공동체 나눔 : “나의 친구이야기”
- 내 용 - 고인을 잃은 슬픔의 극복방법으로 새로운 지지체계를 개발한다.
- 3.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고인이 떠난 후 남은 구성원들의 새로운 지지체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사별가족들이 일상생활로의 원만한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session으로, 연령이 낮고, 직업이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친구가 많다는 대답을 하였고, 고령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모두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지지체계가 미약한 구성원들을 격려하였고, 자조집단 구성 가능성에 대해 관찰하였다.

7 session

일 시 2001년 5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장 소 강남성모병원 내 잔디밭

진행자 웃음요법지도자 이○○, 사회복지사 박○○, 사회복지사 허○○, 수련사회복지사 박○○ (보조)

참석자 사별가족 43명

준비물 마이크, 기타

주 제 “웃으면 복이 와요”

- 1. 전체사별가족 야외 행사
- 내 용 2. 웃음요법
- 3.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웃음요법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웃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성원들이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이 프

평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였으나, 사별한 기간이 짧은 구성원은 잘 참여하지 못하였다. 프로그램의 도입부분에서는 억지로 웃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웃음요법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나, 사별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 session

일시 2001년 5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장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내 다용도실

진행자 음악요법지도자 김○○, 사회복지사 박○○, 사회복지사 허○○, 수련사회복지사 박○○ (보조)

참석자 사별가족 3명(남 1명, 여 2명), 재원환자 가족 5명(남 2명, 여 3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tape

주제 슬픔, 희망, 사랑

- 내용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2. 음악요법 : "슬픔, 희망, 사랑"
- 주제별 음악 감상 및 느낌 나눔
 3.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평가 각각의 테마를 지닌 음악을 듣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음악 감상 시에는 눈물을 흘리거나 미소를 짓는 등 감정상의 반응을 보였으나, 감상에 대한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참석한 사별가족의 수가 적어서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예비사별가족으로 공감되는 감정의 교류가 있어서인지 프로그램 진행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9 session

일시 2001년 6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장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내 다용도실

진행자 미술요법지도자 김○○, 사회복지사 박○○, 사회복지사 허○○, 수련사회복지사 박○○ (보조)

참석자 사별가족 6명(남 1명, 여 5명), 재원환자 가족 3명(여 3명)

준비물 라디오, 음악tape, 미술용품

주제 회상

- 내용
1. warming-up - 근육이완요법 사용
 2. 미술요법
 - 고인에 대한 기억을 세모,네모, 동그라미로 표현
 3. 다음 회기 소개 및 마무리

평가 미술작업으로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고령의 구성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작업을 거절하였으나, 젊은 구성원들은 대체로 잘 표현하며, 완성된 그림을 설명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나타내어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전 회기에 실시했던 음악요법과 웃음요법 등에 비교할 때 미술작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담스러워 하여 초반에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하지 못하였다.

10 session

일시 2001년 6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장소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내 다용도실

진행자 사회복지사 박○○, 사회복지사 허○○, 수련사회복지사 박○○(보조)

참석자 사별가족 7명(남 1명, 여 6명)

준비물 다과

주제 친목의 시간

- 내용
1. 집단 참여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눔
 2. 사별가족의 편지 낭독
- 1주기를 맞이한 고인의 남편이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 낭독
 3. 마무리

평가 고령의 구성원의 경우 인위적인 프로그램보다 부담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차모임 형식을 선호하는 반면, 젊은 구성원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던 구성원(오OO, 남/53세) 평 가 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와 낭독하는 등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사별의 슬픔을 공유하고 극복하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9. 평 가

1) 인구사회학적 측면

프로그램 시간이 평일 오후에 실시되어 청·장년층의 사별가족의 경우 생계유지의 책임으로 사별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워 참석자의 대부분이 노년층과 부녀자로 한정되었다.

집단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open group으로 구성원의 사별기간이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3년 이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애도기간에 따른 사별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2) 집단 운영에 따른 측면

금번 프로그램이 open group으로 진행되어 구성원들이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집단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워하였다.

Open group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많았고, 참여자가 적은 날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임의적인 제안으로 환자 가족을 참여시키기도 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인의 정서상 사별의 아픈 기억 때문에 임종과 관련된 환경이나 장소에 오기를 꺼려하여[10]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하는 가족의 수가 적었다.

3) 집단 구성원의 반응 및 효과 측면

사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슷한 상황의 사별가족들이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공통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다.

사별의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을 제공해 주었다. 한국인의 정서상 타인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꺼리는 구성원이 있었다. 노년층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인위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방법을 선호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제 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사별 이후에 남은 가족은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부재에 따른 생활의 변화 및 적응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하락 등으로 가정 안에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별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나아가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별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별가족 집단프로그램은 남은 가족들이 사별의 충격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효과적인 실천방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서 살펴본 사별가족 집단 프로그램의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내에서 순수하게 개발된 사별가족 집단 프로그램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을 드러내기 꺼려하고 죽음을 터부시하는 한국인의 정서 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인이 죽음과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해 사별가족들의 정서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환자의 재원기간이 짧거나, 입원 중 가족과의

충분한 rapport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사별가족 모임에 나오기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환자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시점부터 가족들과의 충분한 만남을 통해 rapport를 형성하고 사별이후에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탐색과 계획을 함으로써 사별이후에 가족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사별가족관리 및 적극적인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별가족 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가족이 많아 소수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open group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효과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사별가족 집단을 사별시기별, 사별대상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별가족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

별가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광재, 호스피스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190
- 2) 이광재, 호스피스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194
- 3) 노유자 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268
- 4) 노유자 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269
- 5) 조영이. "사별가족간호", 『호스피스간호 병원연수 자료집』,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2002;40.
- 6) 이광재, 호스피스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189-190
- 7) 이광재, 호스피스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193
- 8) 이광재, 호스피스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192
- 9) <http://www.geocities.com/Tokyo/Towers/6662/berintro.htm>
- 10) 김은경. 호스피스센터에서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애도와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2;2
home.inreach.com/overbeck/grfbrf24.htm
www.geocities.com/Tokyo/Towers/6662